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4. 25	05. 02	05. 09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이수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성경 읽기-성령강림절(5월23일)까지 **대선지서(이사야~다니엘)**를 통독합니다.
2. 줌 예배 안내-수요예배(19시), 금요예배(시편 묵상, 20시)
3.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한국 제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92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효종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사 25 : 6 - 8(구p995) 김효종 집사
 설 교 Predigt 주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93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시무권사

아스합(ashap) 풀

성지순례를 하면서 풀 한 포기 자랄 것 같지 않은 사막에도 풀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끈질김에 새삼 감탄이 나왔습니다. 요르단에서 일행을 안내하시는 분께 사막에서 자라는 풀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풀의 이름은 아스합(ashap)이었습니다. 아스합의 씨앗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뜨거운 모래에 파묻혀 오랫동안 비가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10여 년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비가 오면 모래 밑에서 솟아나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활짝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씨를 뿌린 뒤 쓰러진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어 씨를 뿌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대한 비전에는 아름답게 다듬은 정원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시련의 바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거대한 비전을 미리 잘라 버리지 마십시오. 광야와 시련의 바다까지 하나님의 큰 비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좌절을 맛보고 쓰러지기도 하며, 절망을 쌓아 믿음의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베드로, 바울 모두가 이렇게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 안두익목사
(동성교회 담임)

* 하나님은 쓸모 없는 나무조각 같은 우리를 보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 Myles Munroe(교육가, 상담가) -